

2024년, 어느 영어권 모더니즘 시 연구자의 한국 근대/모더니즘 시 다시 읽기: 왜? 무엇을 어떻게?

이 강연은 2024년, 어느 영문학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와 연관된 한국 문학을 읽으며 던진 왜? 무엇을 어떻게? 라는 다소 고전적인 질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찾아온 경험을 나누려는 것이다. 21세기에 접어들며 (영)문학 연구는 지역적 생산보다 전지구적 유통 혹은 순환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의 모더니즘론도 “새로운 모더니즘 연구(New Modernist Studies)” 혹은 “전지구적 모더니즘들(Global Modernisms)”을 표방하며 다양한 유형의 “모더니즘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감안하여 한국의 근대/모더니즘을 어떻게 다시 읽을 것인가?

어떤 유형의 모더니즘론이 기존의 서구제국중심적 논의 틀에서 벗어나 당대 작품의 지역적 특수성과 전지구적 보편성을 함께 드러나게 할 수 있겠는가? 이 강연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잠정적인 대답이 「김기림전집, 원문비평 제1권: 시—“서정의 영토” 너머」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보려는 것이다.

일시: 2024.11.29 (금요일) 오후 5시-6시
장소: 학관 553호

김준환(Joon-Hwan Kim) 교수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2006-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1996-2006)
하버드-엔칭 연구소 및 풀브라이트 방문 학자
연구 분야: 모더니즘, 비교문학, 세계문학
20세기 영어권 시; 영어권 국가와 한국의 근대/모더니즘 시 비교;
영어권 시의 한국 수용

김기림

원문비평

제1권:시
“서정의 영토” 너머

김준환 모음/옮김/주해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전 집

우리는 아프로도 詩(시)의 世界(세계)를 그 배준은 抒情(서정)의 領土(영토)에만 制限(제한)하지 말고 새로운 種類(종류)로 더 넓히 擴張(확장)할 것이나 아닐가?

「詩人(시인)으로서 現實(현실)에 積極(적극) 關心(관심)」

『朝鮮日報(조선일보)』(1936.01.01)

“기탄자리”와 “오마카이암”의 詩(시)가 英國(영국)의 世紀末(세기말) 詩人(시인)들과 仝(동) 安(안)고 우는 동안 印度(인도)와 近東(근동)에는 英國(영국)의 支配(지배)가 날로 구더 갔다. 우리 新詩(신시) 運動(운동)의 當初(당초)에 先驅者(선구자)들이 輸入(수입)한 것은 바로 이러한 十九世紀(19세기)의 傳統(전통)이었다. 象徵派(상징파)의 黃昏(황혼) “센티멘탈·로맨티시즘.”……그것들은 다시 말하면 『센티멘탈리즘』으로 어느 程度(정도)까지는 概括(개괄)할 수 있는 逃避(도피)적인 敗北(배배)적인 回顧(회고)적(회고적)인 一生(일생) 態度(태도)를 代表(대표)했다.

「科學(과학)과 批評(비평)과 詩(시)」

『朝鮮日報(조선일보)』(1937.02.25)

永久(영구)한 『모더니즘』이란 듣기만 해도 몸서리치는 말이다. 다만 그것은 어떠한 歷史(역사)의 契機(계기)에 避(피)치 못할 必然(필연)으로서 登場(등장)했으며 또한 그 뒤의 詩(시)는 그것에 대한 一定(일정)한 關聯(관련) 아래서 發展(발전)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結論(결론)을 가짐이 없이는 新(신) 詩史(시사)를 똑바로 理解(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 또 『모더니즘』의 歷史性(역사성)에 대한 把握(파악)이 없이는 그 뒤의 詩(시)는 참말로 正當(정당)한 歷史的(역사적) 『코-쓰』를 찾았다 고는 할 수 없다.

「모더니즘의 歷史的(역사적) 位置(위치)」

『人文評論(인문평론)』(1939.10.01)

우리가 말하는 民族文學(민족문학)은 아모런 感傷(감상)도 自己陶醉(자기도취)도 必要(필요)로 하지 않고 現實(현실)의 具體的(구체적)인 歷史的(역사적) 社會的(사회적) 諸(제) 契機(계기)에서 提起(제기)된 것이며 一面(일면)에 있어서는 特殊(특수)한 社會的(사회적) 內容(내용)을 가지면서 他面(타면)에 있어서 世界史的(세계사적) 要求(요구)의 發顯(발현)이라고 하여 마땅하다. 即(즉) 文學(문학)의 民族的(민족적) 形式(형식)의 完成(완성) 反封建主義(반봉건주의) 싸움에 依(의)한 急速(급속)한 近代化(근대화)라는 點(점)에서는 特殊(특수)한 社會的(사회적) 內容(내용)의 所產(소산)이라고 하겠으며 反帝國主義(반제국주의) 싸움에 依(의)한 人類(인류)의 自由(자유)와 世界平和(세계평화)의 擁護(옹호)와 反(반)『파씨즘』의 싸움에 依(의)한 文化(문화)의 世界性(세계성)의 完成(완성)과 또 眞正(진정)한 人民的(인민적) 文學(문학)의 樹立(수립)이라는 세 가지 點(점)에 있어서는 바로 世界史的(세계사적) 使命(사명)에도 連結(연결)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9 現代文學(현대문학)의諸(제)課題(과제), D 民族文學(민족문학)』
『文學概論(문학개론)』(1946.12.20)

李箱(이상)은 드높은 감정 때문에 극도로 뒤북는 우리 詩(시)를 그 感情(감정)의 分別(분별)없는 投資(투자)에서 건져 내려왔던 것이었다. 아담한 溫帶(온대)가 야만한 帝國主義(제국주의)의 유린을 받듯, 詩(시)가 소박하고 유지하고 지저분한 感情(감정)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그는 못마땅히 여겼던 것이다. 인생의 어떠한 격렬한 장면에서도 그의 詩(시)와 生理(생리)는, 늘 平均(평균) 體溫(체온)보다 몇 分(분) 도리어 낮은 體溫(체온)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다.

『李箱(이상)의 모습과 藝術(예술)』(1949. 03. 15)
『李箱選集(이상 선집)』(1949. 12. 10)

나비와 바다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무밭인가 해서 [날아갔다가는]³⁾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 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⁴⁾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

(『여성』 4.4. 1939. 04. 01. 18쪽)

(『바다와 나비』 39: 『바다와 나비』)

금붕어

금붕어는 어항 밖 대기를 오르려야 오를 수 없는 하늘이라 생각한다.

금붕어는 어느새 금빛 비늘을 입었다. 빨간 [꽃잎]⁶⁾ 같은 꼬랑지를 폈다. 눈이 가락지처럼 빠져나왔다 인제 금붕어의 엄마는 웅당 화장한 따님을 몰라볼 거다

X

금붕어는 아침마다 말쑥한 냉수를 뒤집어쓴다.

떡가루를 뿌려 주는 흰 손을 천사의 날개라 생각한다.

금붕어의 행복은 어항 속에 있으리라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도 있다.

X

금붕어는 유리 벽에 부딪혀 머리를 부수는 일이 없다

안전한 수염은 어느새 국경임을 느끼고는 아담하게 꼬리를 짓고 돌아선다. 지느러미는 칼날의 흉내를 내도 항아리를 끊는 일이 없다.

X

아침에 책장 위에 옮겨 놓으면 창문턱으로 비스듬히 햇빛을 녹이는 붉은 바다를 흘겨본다. 꿈이라 가르쳐진 그 바다는 넓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X

금붕어는 아롱진 거리를 지나 어항 밖 대기를 건너서 지나혜⁶⁾의 한류를 끊고 헤엄쳐 가고 싶다. 쓴 매개⁷⁾를 와락와락 삼키고 싶다. 옥도⁸⁾ 빛 해초[의] 삼림 속을 걸푸른 비늘을 입고 상어에게 쫓겨 다녀 보고도 싶다.

X

금붕어는 그러나 작은 입으로 하늘보다도 더 큰 꿈을 오르려 죽여 버려야 한다.

배설물의 침전처럼 어항 밑에는 금붕어의 연명이 쌓여 간다.

X

금붕어는 오르려야 오를 수 없는 하늘보다도 더 먼 바다를 자꾸만 돌아가야 할 고향이라 생각한다.

—(9.28)—

(『조광』 1.2. 1935. 12. 01. 39-40쪽)

(『바다와 나비』 63-65)

시론

— 여러분 —

여기는 발달된 활자의 최후의 총계율시다
 단어의 시체를 깊어지고
 일본 종이¹⁾의
 표백한 얼굴 위에
 거꾸러져
 헛떡이는 활자 —

벨²⁾을 수술한
 백색 무기호 문자의 해골의 무리 —
 역사의 가슴에 매달려
 죽어가는 단말마
 시의 새파란 입술을
 축여줄 [챔피언]³⁾은 없느냐?

공동변소 —
 오랫동안 시청의 소제부⁴⁾가 잊어버린 질식한 똥통 속에
 어느 곳 센터멘털한 영양⁵⁾이 흘러고 간
 타태⁶⁾한 사아⁷⁾들
 시 검찰관의
 삼각 귀밀눈⁸⁾이 낚시질했다
 — 시다 — 브라보 —

나기를 너무 일찍이 한 것이여
 생기기를 너무 일찍이 한 것이여
 감격의 혈관을 탈장당한
 죽은 언어의 대량 산출 홍수다
 사해의 범람 — 경계해라

(시의 궁전에 — 골동의 폐허에

시는 질식했다
 안젤루스⁹여
 선 세기의
 오랜 폐인¹⁰
 시의 조종을
 올려라
 1930년의 들에
 예술의 무덤 위에
 우리는 흙을 파 었자

애상의 매음부가
 비장의 범의를 도적해 두르고
 거리로 끌고 간다
 모든 슬픔이
 예술의 이름으로
 대륙과
 바다 —
 모든 목숨의
 왕좌를 짓밟는다

탁류 — 탁류 — 탁류
 센터멘털리즘의 홍수
 커다란 어린애 하나가
 화강 채찍을 휘두른다
 무덤을 꽃피운
 구원할 수 없는 황야
 예술의 제단을 휩쓸어 버리려고

위선자와
 [느림뱅이]¹¹⁾ — 어저께의 시들이여
 (

잘 있거라
우리들은 어린아이다
심볼리즘¹²⁾의
몽롱한 형용사의 줄느림¹³⁾에서
예술의 손을 이끌자

한 개의
날뛰는 명사
꿈틀거리는 동사
춤추는 형용사
(이건 일찍이 본 일 없는 훌륭한 생물이다)
그들은 시의 다리(각)에서
생명의 불을
뽑는다
시는 탄다 100 도로 —
빛나는 플라티나¹⁴⁾ 광선의 물결이다

모든 율법과
[모랄리티]¹⁵⁾
선
판단
— 그것들 밖에 새 시는 탄다
아스팔트와
그리고 저기 레일 위에
시는 호흡한다
시 — 땡구는 단어

(『조선일보』 1931. 01. 16. 4면)

황

물레방앗간 문턱 아래는 어느 때의 불하⁵⁾인지 모르는 낡은 군대의 구두 한 [결레,]
 일찍이 그는 군마의 호곡⁶⁾과 생명의 최후의 순간의 비명을 짓밟고 용감한 상등
 병 슈미트 베이커의 물에 툰 발을 보호하는 임무에 있었는데 지금은 카이저⁷⁾처럼
 버려진 자의 운명과 함께 있습니다 니콜라이 2세⁸⁾의 무덤도 —— 노후한 개선문⁹⁾
 도 ——

태양의 어린 아들인 무수한 광선들이 두텁게 잠긴 게으른 문창¹⁰⁾을 분주히 때립니
 다 (버드 대좌¹¹⁾의 제어할 수 없는 정신을 가진 모험성의 작은 새들이여.)

“킵 —— 킵 —— 킵”

안개의 해저에 침몰한 마을에서는 개가 즉흥시인처럼 혼자서 짓습니다

“오 —— 오 [늦잠쟁이]¹²⁾ 물레방아쟁이 ——

지금쯤은 지상으로 돌아와도 좋은 때가 아닙니까 벌써 아침인데 —— 당신의 꿈을
 끌어안고 있는 일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까”

(『조선일보』 1931. 04. 23. 4면)

(『태양의 풍속』 129, 130, 131: 「3월의 시네마: 물레방앗간, 분광기, 개」)

식료품점

초콜릿……

사랑엔 패했을망정

은빛 갑주²⁾ 펼쳐입은³⁾ 초콜릿 병정 각하⁴⁾

사랑은 여러다고

아가씨의 입에서도 눈처럼 녹습니다.

서방님의 입에서도 얼음처럼 녹습니다.

임금⁵⁾……

심장을 잃어버린 [토끼]⁶⁾는 지금 어디 가서 마른 풀을 베고 낮잠을 잘까

모과 = 파인애플……

여보 칼을 대지 말아요 부디

피 묻은 토인의 노래가 흐를까 보오⁷⁾

밤……

무장해제를 당한 중앙군⁸⁾의 행렬입니다.

헨진으로 가는 건가 난징⁹⁾으로 가는 건가 대장의 통전¹⁰⁾을 기다립니다.

(『신여성』 8.1. 1934. 01. 01. 12-13쪽)

(『태양의 풍속』 143-146: 식료품점 1, 초콜릿, 2, 임금; 3, 모과(파인애플), 4, 밤(울)

해양 동물원

A. 코끼리

키플링¹⁾ 씨의 자장가만 듣고
코끼리는 잠만 잘 자면 칭찬을 받는다.

(『조광』 5.7. 1939. 07. 01. 116쪽)

(『바다와 나비』 84)

B. 낙타

뒹뒹이 천생¹⁾ 근로계급이다

어윈 경²⁾ 태평하시라고 보내신 하느님의 선물이다.

(『조광』 5.7. 1939. 07. 01. 116쪽)

(『바다와 나비』 85)

C. 앙포¹⁾

밤낮없이 모양만 내시니

조국 에티오피아²⁾ 왕조의 종언은 모르시나요?

(『조광』 5.7. 1939. 07. 01. 117쪽)

(『바다와 나비』 86)

8. 고향 (나)

사노 마나부²⁾의 전향 성명을
스무 번 읽어도 알 수 없더라는 청년에게 이끌려
못 먹는 술을 곱빼기로 석 잔을 넘기다.

(『조선일보』 1936. 03. 17. 석간. 5면)

쉬르레알리스트¹⁾

거리로 지나가면서 당신은 본 일이 없습니까
 가을빛으로 짙 장삼을 두르고
 갈대 고깔을 뒷덜미에 붙인 사람의
 어리꾸진²⁾ 노래를 —
 괴상한 춤 댄시를 —
 그는 [1930]³⁾년 최후의 시민 —
 프랑스혁명⁴⁾ 말예⁵⁾의 최후의 사람입니다
 그의 눈은 프리즘처럼 다각입니다
 세계는 거꾸로 채광되어 그의 백색 카메라에 자빠집니다
 새벽의 땅을 울리는 발자국 소리에 그의 귀는 기울어지나
 그는 그 뒤를 따를 수 없는 가없는 절름발이외다
 자본주의 제3 기의 메리-고-라운드⁶⁾로
 출발 전야의 반려⁷⁾들이 손목을 이끄나
 그는 차라리 여기서 홀로 서서
 남들이 모르던 수상한 노래에 맞추어
 혼자서 그의 춤을 추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압니다 이윅고 카지노 폴리⁸⁾의 주악⁹⁾은 피곤해 끝이 나고 거리는 잠잠해지고 말
 것을 생각지 마세요 그의 노래나 춤이 즐거운 것이라고 그는 슬퍼하는 인형이외다
 그에게는 생활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생활을 가지는 때
 우리들의 피에도 쓰러집니다

(『조선일보』 1930. 09. 30. 4면)

상공운동회⁸⁾

유쾌한 주악을 앞세우고
서슬⁹⁾ 좋은 가장행렬¹⁰⁾이 떨며 간다……

○

카이사르¹¹⁾의 투구를 쓴 상회
분을 바른 공장
환약의 여신
붉게
푸르게
변하는
행렬의
표정

○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멈춰 서는
푸른 전차들의 예의……
포도¹²⁾를 더럽히는 시든 얼굴을 물리치면서
[건방진] 행렬이
개선장군을 뵈낸다

○

“무솔리니·비지니·쇄바니·제르미니……
루스벨트·슈벨트·벨트·벨탕……
힘멘쓰·힐트·히스트·히틀러·히포·타마쓰¹³⁾……
모두 그계 다
우리의 무리의
동무다 동무다 동무다……”

○

셋
조용해라¹⁴⁾
누가 배금종¹⁵⁾ 성서의 제1 장을 낭독한다

“돈을 좋아 한다는 것은 결코 부도덕은 아니다 우리의 세계에는 그림자가 없다
우리는 슬픔이라고 하는 우울한 여자를 본 일이 없다

(

그러니까 기쁨까지가 희박한 투명체를 이룬다……”

○

시민들은 집들을
자물쇠나 좀도적이냐 늙은이나 어멈이나 고양이냐 시계에게 맡기고는
운동장¹⁶⁾으로 뛰어간다……

○

이윽고
호각 소리……
자전차가 달린다
선수가 달린다
그러나 나중엔 상표만 달린다

○

움직이는 상업전의 이마 위에
정렬하는 사고의 행렬……
압도된 머리가
주저한다
결심한다 주저한다
“이 상점이 더 가속도적인 걸”
“아니 저 회사가 좀 더 빠른 걸”

○

차라투스트라의 산상의 탄식¹⁷⁾……
“그들은 사람의 심장에서 피를 몰아내고 그 위에
아침의 조수와 밤의 탄식을 모르는
회색 건축을 세우는 데 성공했다”

○

“브라보 ——”
핫 핫 핫……

(『조선일보』 1934. 05. 16. 조간, 특간 2면)

(『태양의 풍속』 185-89)

시체의 흐름

광야는 그 무한 속에
정열에 타 죽은 청춘의 주검을 파묻었다

화장장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주검을 하나
광야에 심었다——
생장하여라 광야여

만주¹⁾의 하늘은
창부의 뱃가죽처럼
풀어져 드리워 있다
오후의 태양이
[별거벗은] 새빨간 심장을 들고
[그녀의] 회색 침실을 찾아다닌다

우수리²⁾ 깊은 하수도 속에
오후의 태양이
혼자서 빠져 죽었다
대지에서 튀어나온 어린아이가
갈대를 붙잡고
물속에 떨어진 여명의 태양을 낚시질 한다
갈대를 붙잡고——

그는 들 가에서
꼬리 단 호적³⁾의 대장을 붙잡았다
“걸어오는 태양을 본 일이 있느냐”
호적의 머리꼬리⁴⁾가 호적의 작은 골과 같이 돈다

그의 발길에 차여
(사나이의 시체가 흙을 떨며 대지에 뒹군다

— 사지는 줄어 붙었으나
머리가 없다—
머리 없는 귀신이여
머리 없는 귀신이여
“너는 지옥에서 너의 연인의 얼굴을 보아도 모르겠지”

오호츠크의 온순한 물결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한다
오호츠크의 도색⁵⁾ 심장에서 화씨 30도의 바람이
따뜻한 키스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 말라붙은 온 생물을 손질하며 거친 들 위를 날
아온다

한겨울 동안 감금되었던 눈 아래 파묻힌 망각의 옛집에 [“잘 있거라”를 고하고
태양은 어린아이와 같이 얼어붙은 강 면을 구르며 쏘다닌다 무사념한 해방된 큐
퍼드며 골짜기에 잔 긴 깊은 잠에서 놀라 깨어 간 시켜면 강물은 분노와 같이 밀려
나온다
흑룡강의 오월⁶⁾—

떠내려오는 얼음덩이 사이에서
사공은 울을 잡아서 제 서른일곱 번째 주검과 대면했다고 아내의 마음 넣은 뗏상
(반상)에도 돌아앉지 않는 밤 사공의 마음[은] 밤을 밝히며 낮모를 주검을 에워싸
고 강을 내려간다

이윽고 그의 꿈은 물바퀴⁷⁾ 치는 흑룡강 위에서
또 다른 주검에 부딪혀 깨어났다
그것은 그 자신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의심했다
“다음날 그는 돌아올까?”

우리들의 사공은 별판으로 튀어나왔다 길가에서 XX군 대장의 카키 빛 군복⁸⁾을 붙
잡았다
“자네 무엇 하려 자네의 마우저⁹⁾ 끝으로

XX인의 노르만 코에 겨누고 있는가 자빠진 놈의 심장 속에 자네 모델 끝을 적서 내는 때 자네의 인생에 무엇을 플러스했는가?”

또 다른 모퉁이에서 부들부들 이를 가는 젊은 병사의 손목을 쥐었다
“보았지? 자네 회사의 2 층 사장실의 공기가 불려 가는 사장의 배짱 때문에 압축을 느낄 때 자네는 빛나는 백동훈장을 드리운 가슴을 내밀고 자네의 부러진 다리를 끌고서 자네의 국토를 밟겠지 아예 자네들의 맹장과 같은 XX주의는 자네들의 배낭 속에 집어넣게”¹⁰⁾

이튿날 새벽 동트기 전에

무거운 구두 소리가 강가의 새발¹¹⁾을 쓸고 간다

사공의 긴 옛이야기와 남은 이야기들을 담은 거적이 강 위에 던져졌다 —— 돌아서는 발자취 소리

“다음날 그는 돌아올까?” 기다리는 아내의 작은 오막살이로 흑룡강에는 오월이 돌아왔다

(『조선일보』 1930. 10. 11. 4면)

아프리카 광상곡³⁾

숨 막히는 독와사⁴⁾에 썩은⁵⁾ 티끌이 쓸려간 뒤에
 성도⁶⁾의 아침에 왕조의 역사는 간 데 없고
 어느새 로마의 풍속을 단장한 추장 따님의
 흉내 내는 국가의 서툰 곡조가 웬일이냐?

급한 발길을 행여 막으려 다투어 던지는
 진홍빛 장미의 언덕을 박차며
 열사⁷⁾를 뿜으며 물려오는
 검은 쇠바퀴……검은 말발굽 소리……

테이블에 쏟아지는 [샴페인]⁸⁾의 폭포
 “소생하는 로마야 마셔라 기린의 피를……
 정의도 상아도 문명도 석유도 우리 것이다.”⁹⁾
 법왕¹⁰⁾의 종들과 라디오가 마을 마을에 요란하다.

다산 화산¹¹⁾에 불이 꺼진 날
 새로 엮인 페이지에 세기의 범행이 임리하구나.¹²⁾
 입 [다문] 증인인 청나일¹³⁾이 혼자
 애사¹⁴⁾를 증언거리며 애급¹⁵⁾으로 흐르더라.

오늘은 삼색기¹⁶⁾의 행진을 축복하는
 사막의 태양.
 타나 호¹⁷⁾ 푸른 거울 속에
 5월의 얼굴이 태연하구나.

>

한니발도 짓밟고 카르타고도 불 지르고¹⁸⁾
오늘은 천년 묵은 사막의 정적을 부수고 가는
피 묻은 늪은 쇠바퀴야
너 달려가는 곳이 어디냐?

(5.10)¹⁹⁾

(『조광』 2.7. 1936. 07. 01. 34-35쪽)

(『바다와 나비』 58-60)

추방된 주피터⁶⁾

파초 이파리처럼 축 늘어진 증절모 아래서
 땀어 문 파이프가 자주 기록하지⁷⁾ 못한 원광을 그려 올린다.
 거리를 달러가는 밤의 폭행을 잊든
 치켜올린 어깨가 이 결상 저 결상에서 으쓱거린다.
 주민들은 벌써 바다의 유혹도 말 다들 흥미도 잃어버렸다.

[간다라]⁸⁾ 벽화를 흉내 낸 아롱진 잔에서
 주피터는 중화민국의 여린 피를 들이키고 꼴을 찡그린다.
 “주피터 씨 술은 무엇을 드릴까요?”
 “응 그 다락에 얹어 둔 등록한 사상일랑 그만둬.
 빛은 지 하도 오래라⁹⁾ 김이 다 빠졌을 걸.
 오늘 밤 신선한 내 식탁에는 제발
 구린 냄새는 피지 말어.”

주피터의 얼굴에 절망한 웃음이 장미처럼 희다.
 주피터는 지금 실크해트를 쓴 영란은행 노만 씨¹⁰⁾가
 글썩 대영제국 아침거리가 없어서
 장에 계란¹¹⁾을 팔러 나온 것을 만났다나.
 그래도 계란 속에서는
 빅토리아 여왕¹²⁾ 직속의 악대가 군악만 치더라나.

주피터는 록펠러 씨¹³⁾의 정원에 만발한
 곰팡이 낀 절조¹⁴⁾들을 도무지 칭찬하지 않는다.
 별처럼 무성한 온갖 사상의 화초들.
 기름진 [장미]¹⁵⁾를 빨아먹고 오만하게 머리 추켜든 치욕들.

주피터는 구름을 믿지 않는다. 장미도 별도……
 주피터의 품 안에 자빠진 비둘기 같은 천사들의 시체.
 검은 피 앙클런 날개가 경기구¹⁶⁾처럼 쓰러졌다.
 딱한 애인¹⁷⁾은 오늘도 주피터더러 정열을 말하라고 조르나

주피터의 얼굴에 장미 같은 웃음이 눈보다 차다.
 땅을 밟고 하는 사랑은 인제고 흠이 묻었다.

아무리 때려 보아야 스트라빈스키¹⁹⁾의 어느 줄작보다도
 예쁘지 못한 도·레·미·파……인생의 1주일.
 은단추와 조개껍질과 금화와 아가씨와
 프랑스 인형¹⁹⁾과 몇 개 부스러진 꿈 조각과……
 주피터의 놀음감²⁰⁾은 하나도 재미가 없다.

물려오는 안개가 겹겹이 둘러싼 네거리에서는
 교통순사 룰랑 씨²¹⁾ 루즈벨트 씨²²⁾ 기타 제씨²³⁾가
 저마다 그리스도 몸짓을 흉내 내나
 함부로 돌아가는 붉은 불 푸른 불이 곳곳에서 사고만 일으킨다.
 그중에서도 프랑고 씨²⁴⁾의 직립부동의 자세에 더군다나 현기증이 났다.

주피터 너는 세기의 아픈 상처였다.
 악한 기류가 스칠 적마다 오슬거렸다.²⁵⁾
 주피터는 병상을 차면서 소리쳤다.
 “누덕이불²⁶⁾로라도 신문지로라도 좋으니
 저 태양을 가려다오.
 눈먼 팔레스타인의 살육²⁷⁾을 키질하는²⁸⁾ 이 건장한
 대영제국의 태양을 보지 말게 해다오.”

주피터는 어느 날 아침 초라한 걸레 조각처럼 때 묻고 헤어진
 수놓은 비단 형이상학과 체면과 거짓을 쓰레기통에 벗어 팽개쳤다.
 실수 많은 인생을 탐내는 썩은 체중을 풀어 버리고
 파르테논²⁹⁾으로 파르테논으로 날아갔다.

그러나 주피터는 아마도 오늘 셀라시에 폐하³⁰⁾처럼
 헤어진 망토를 두르고

무너진 신화가 파묻힌 폼페이 해안을
바람을 데리고 혼자서 소요하리라.

주피터 승천하는 날 예의 없는 사막에는
마리아의 찬양대도 분향도 없었다.
길 잃은 별들이 유목민처럼
허망한 바람을 숨 쉬며 떠다녔다.
하나 노아의 홍수보다 더 진한 밤도
어둠을 [뚫고] [타는] 두 눈동자를 끝내 감기지 못했다.

(『현대 조선 문학 전집: 시가집』 제2회 배본, 1938. 04. 01. 201-06쪽)

(『바다와 나비』 93-98: 「주피터 추방, 이상의 영전에 바칩」)

자유로운 아메리카 축시⁷⁾

아득한 바다 건너 한없이 넓은 하늘 아래
 흥성한 나라가 있어
 아무의 권위도 믿지 않는
 자유와 높은 하늘과 들과 일을 죽음보다
 사랑하는
 한 싱싱한 백성들이 거기 산다고 한다
 만나기도 전부터
 그대들 무척 반겼음은
 우리 또한 엄매임 없는 넓은 대기와 살림
 한없이 그리웠기 때문
 모든 낡은 권위 무너져 부스러져야 함을
 알기 때문이었다

사슬과 억압을 잠시도 용서 않으며 포악과 침략을 가장 미워하는 그대 약한 자의
 곁에 서 있기를 늘 좋아하는 그대 자유와 또 전진만을 노래하는 시의 전통을 가진
 휘트먼⁸⁾의 나라 백성이기에
 그대 손목을 우리는 한없이 뜨겁게 잡으려 하였다

아! 잊힐 리 없는 1945년 9월⁹⁾ 의로운 우리들의 동무
 왕 없는 나라 귀족 없는 나라 인민의 나라 젊은 전사들은
 바다로 하늘로 구름같이 덮여 온다 하였다 압제와 학살과 협박에 짓밟히고 찢긴
 땅에서
 독사의 무리와 그 앞잡이들 모조리 우리는 채찍 높이 휘둘러 쫓아내리라 하였다
 그대들 또한 우리 옆에 예루살렘 신전의 성난 젊은이¹⁰⁾처럼 서 있으리라 하였다
 그러나 그대는 젊은 조선의
 불타는 눈초리를 알지 못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한 혁명임을 알지 못했다
 연속이 아니라 단절을

추이¹¹⁾가 아니라 청신한 도약이야말로 젊은 조선의 희망이었음을
 지나간 날은 너무나 안타까이도 캄캄했던 까닭에
 너무나 역사에게 버림받았던 까닭에
 그러므로 우리는 커다란 새날만을 바랐었다

1945년 8월¹²⁾은 바로
 우리들의 1776년 7월¹³⁾이고자 하였다
 모든 불합리와 모반과 사술에 대한 불붙는 항의
 위대한 인민의 권리와 자유의 선언이었다 그대는 우리들의 “7년의 싸움”¹⁴⁾을 거지반¹⁵⁾
 도맡아 4년¹⁶⁾을 싸웠다
 그대는 우리들의 백만의 라파예트¹⁷⁾
 [감옥]과 지하의 우리들의 전사의 군은 동맹군 ——

인제 그대들 우리 곁에 있거늘
 여기는 오직 오랜 가난과 불결과 회의와 연기
 모두가 왜적이 남기고 간 생채기뿐 —— 그대 손길 너무 높은 데 있어 도시¹⁸⁾ 잡기
 가 어렵구나
 프록코트도 살롱도 우리는 없노라 비굴이나 아첨이나 예복은 오직 오래 입어 본
 자들만이 얼른 다시 뒤집어썼건만
 우리는 느꼈노라 그는 도리어 의로운 전사를 대접하는 예의 아님을 ——

축배를 들자 7월 초나홀¹⁹⁾을 위하여 ——
 자유로운 아메리카의 성스러운 싸움에 빛나는 지나간 날과 오늘과
 또 평화와 희망의 부채에 무거운 내일을 [위하여] ——
 워싱턴 제퍼슨 그리고 프랭클린의 나라
 무엇보다도 에이브러햄 링컨의 나라 그 무엇보다도 프랭클린 루스벨트²⁰⁾의 나라
 이기에
 그대에겐 있건만 아직도 독립 없는 우리의 아픔을
 아 —— 누구보다도 그대가 잘 알리라

자유 위한 싸움터 위

이해와 존경과 높은 이상으로 뺏어진 우리들의 굳은 악수 위에 장미를 던져라 저
위대한 1776년의 7월을 위하여 우리 모두 축배를 들자

(『현대일보』 1946. 07. 04. 2면)

(『새노래』 65-71: 『아메리카』)

통일에 부침¹⁾

우리는 본시²⁾ 하나였다.

빠져린 채찍 아래서도 끌어안고 견디던 하나였다.

소리소리 지르면 저절로 반항의 합창이던

눈물 어린 망향의 쓴 잔도 함께 나는

오! 돌을 모르는 하나였다.

[티]³⁾ 없는 하늘 아래

[무늬]⁴⁾ 놓은 기와와 그릇과 비단과 종종한 말

두 아름다운 것

죽어지라 사랑하며 살아온 내력도 하나

인제 온 백성을 들어 구복⁵⁾ 문제의 막다른 골로 몰아넣어

형제 있는 곳과 소식 또 오래인 꿈

돌볼 새 없이 만드는

이 놀라운 실리주의의 천재에 우리 모두 항거하리라.

짓밟힌 아름다운 것 함께 모여 소곤소곤 살아갈 길 지키기 위하여

이방 친구들에게 이르노니

한데 뭉친 민중의 민주주의 대신에

조각난 폭군의 민주주의를

그대들에게 우리 언제 부탁한 기억이 없다

4월 달 진달래 뿌리 뺏어

[마루]⁶⁾도 굳이⁷⁾ 뺏어

남북으로 만발한 산뱃과 핏줄

뚜드려져 꿈틀거리는 것

뉘 감히 꿇을 것이냐?

흐르는 강물도 철로도 전선도 변하는 계절도

오로지 한 소리 아래 움직이고 싶어 —

모든 시내 강물 바다로 모이 듯

진달래 개나리 우거져 피는 한 보금자리로

(

우리 모두 한데 엉키어 나뉘지⁸⁾ 말자.

틀어진 손과 손 악수가 아니라
남과 북의 자국도 없는 용접
모든 열역학의 법칙을 기울여
거만한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보이라 우리 모두 감아 매리

(『신민일보』 1948. 04. 18. 2면)

우리들의 악수

1만 가슴인데
 만으로 천만인 가슴인데
 한 갈래로 울리는 신기한 울림은
 막으려야 막을 수 없는 울림은 무엇이나
 별보다도 확실한 걸음걸이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도
 굽힐 수 없는 강철의 궤도를 구르는
 쇠바퀴리라

함부르크 룩셈부르크
 로잔
 카이로 콜카타 하노이
 시카고와 에든버러¹⁾
 거리를 무시하는 날랜 전파
 핏줄과 같이 화끈한 것은
 황혼에 빛나는 한 떨기 장미 같은 웃음
 내일에 부치는 약속이리라

무너져 가는 제국
 관철이 부은 자본주의
 피사의 탑을 지탱하는 물리학도
 드디어 건질 수 없는
 기울어지는 것들의 운명이다
 만 가슴 만만 가슴을
 견딜 수 없이 구르는 것은
 미래로 뻗은 두 줄기 빛나는 강철
 보랏빛 미명²⁾에 감긴 길이다

>

우리들의 악수는
내일
한 바퀴 지구가 돌아간 곳에서 하자

(『새노래』 34-37)

세계에 외치노라 (1)

부스러진 거리거리 이지러진 육지에
 화약 연기 [견히는] 날
 오랜 병석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한 새로운 세계의 얼굴은 떠오르리라 —
 어지럽던 지옥의 지리가 끝난 곳에
 어린 천국의 보석 대문은 열리리라 했더니 —

X X X

물노니 역사여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배부를 줄이 없이
 수없는 청춘과 또 꿈
 박물관과 도서관과 대학
 가장 비싼 세계의 재산을 삼켰더니.
 “자유와 그리고 새로운 세계”
 그 밖에는 이 커다란 살육을 용서할
 5색 논리로 단장한 아무러한 구실도 거짓이리라

X X X

저 동으로 뻗친 살진 동맥
 여러 세기를 두고 한 제국을 키워 간 탐욕스런 핏줄을 보아라
 존 불⁴⁾ 씨의 사치한 신경이 거기 얽혀 떨리지 않느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엌에서 부엌으로 끌려 다니는
 사자의 염통 아프리카를 보아라
 구라파⁵⁾의 호텔을 부지하는⁶⁾ 수입 [맞는] 영양⁷⁾을 —

— 계속 —

(『신조선보』 1945. 12. 29. 1면)

(『바다와 나비』 101-06)

세계에 외치노라 (2)

힌두스타니³⁾는 얼굴 검은 종족에게 주라.

여왕님. 진주 목도리는 독목주⁴⁾ 선수들의 것입니다.

사막과 금강석은 말 잘 달리는 주민에게 돌리라.⁵⁾

분주한 문명이라는 시장에 그들은 지각한 죄박에 없었으니 —

지구에 휘감긴 작은 사슬을 아직도 지키려는 자 누구냐

X X X

착한 늙은 나라 나라에 황홀한 야시⁶⁾일랑 벌이지 말라.

지혜와 일과 웃음만이 있으면 그만이다.

분과 비단은 사탄의 얼굴을 감추는 데만 소용이 되리라.

오 — 오래인 신전 거룩한⁷⁾ 대륙에서

장사치와 마키아벨리⁸⁾의 후예를 쓸어버릴

성난 히브리 젊은 사나이⁹⁾는 어디 있느냐.

X X X

병든 꿈에 배인 어두운 신화와

사나운 열병에 몰린 세 민족¹⁰⁾이

온 세계와, 젊은이와 태양을 물어 버렸던

저 식은 재와 같은 여러 해를 잊었느냐.

무명전사의 십자가에 묻노니 그대 어깨에 걸린 것은

누구의 자유를 위한 꽃다발이냐.

X X X

구라파¹¹⁾의 등에 솟은 해골의 산¹²⁾

우크라이나¹³⁾ 노르망디¹⁴⁾ 불붙는 화덕에

오 — 무럭무럭 거기 풍성한 여러 나라의 청춘을 피웠더라.

녹아 흐르는 불바다 불길 뿜은 섬들

세계의 반 조각에 걸쳐 아직도 남아 타고르는 기름과 유향 연기.

오 — 여러 해 꺼질 줄 모르던 세기의 화장터야

(『신조선보』 1945. 12. 30. 1면)

(『바다와 나비』 101-06)

세계에 외치노라 (3)

중천에 사무치는⁴⁾ 화롯불을 피우자.
 제국을 떠받치던 해골의 서까래도 기동도
 호사와 음란을 길러 가던 무지와 부덕도
 화롯불에 던져라 어서 살라 버려라.
 세계에 금을 그은 저 요새선⁵⁾들과
 대포와 조병창⁶⁾과 투구들도 —
 전쟁은 벌써 끝나지 않았느냐.
 제국도 강국도 다 역사의 가슴에 달린
 부질없는 사치한 장식이 아니냐.

X X X

여러 오해와 적의의 가시덤불에 [짜여]
 한 갈래 좁고 가는 이해와 지혜의 길은
 아직도 어두운 밤 [플라티나]⁷⁾ 머리칼처럼 희미하게 떨릴 뿐.
 나의 아름다운 세계 현란히 열릴 날 언제냐.
 오직 하나뿐인 세계 금 가지 않은 세계로 향해
 사라센⁸⁾의 휘장처럼
 아침 안개 눈부시게 걷힐 날은 언제냐.

X X X

어두운 죽음 속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논리.
 해골의 들에도 봄바람이 불면
 젖은 갯더미 위에도 별거벗은 산맥에도
 짙은 트리니 푸른 짙은 트리니
 이윽고 거기 보랏빛 당홍빛 노랑이
 무지개같이 가지가지 꽃 우겨져 나부껴
 인제 어린 아담들 눈을 [비비며]⁹⁾ 일어나리라.
 세계에 외치노니 어서 길을 [비켜라].
 저기 새로운 날은 녹슨 사슬을 [끈] 채
 거만한 프로메테우스¹⁰⁾처럼 그러나 능름히 오지 않느냐.

— (끝) —

(『신조선보』 1945. 12. 31. 1면)

(『바다와 나비』 101-06)

눈짓으로 이해하는 전선

손 오케이시의 『쟁기와 별』¹⁾을 읽은 날 밤에
애란²⁾ 군대를 꿈에 만났다
공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목이 굽고 눈이 둥근 젊은이들이 우중충 앉아 있었다
나는 흰 군복을 입은 사령관과 서로
이방 사람이 아니라는 듯이 눈 알림으로 인사했다

말이 없는 군대
굽히지 않는 군대
사슬을 용서하지 않는 군대

인도³⁾ 군대를 만나면
아마도 손아귀 으스러지라 틀어쥐리라
안남⁴⁾ 군대를 만나면 껴안고 뺨을 비비며 러시아 춤추듯 돌아가리라

손을 [별리자]⁵⁾
자유 찾는 불길이 이는 곳마다
우리들의 동무는 있다
말이 아니라
눈짓으로 이해하는
전선이 있다⁶⁾

(『새노래』 38-40)